이젠 말사도 '도심 직영포교당' 건립 가능

조계종 중앙종회 제224차 임시회

사찰법 · 중앙종회법 개정안 가결
종회 내 문화분과위원회 신설키로
청년예비출가제 신설안 결국 철회
원로의원에 원각 · 도영 스님 추천


조계종 중앙종회는 3월 28~29일 제224차 임시회를 개최했다.

신성민 · 송지희 기자

앞으로 교구본사가 아닌 말사도 도심지역 및 신도시에 포교거점 역할을 담당할 직영포교당을 건립, 직접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또 문화포교 및 문화재 보존관리가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만큼 제18대 중앙종회부터 문화분과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정문)는 3월 28~29일 제224차 임시회에서 종법개정안을 다룬 결과, 도심사찰의 직영포교당 운영을 골자로 한 사찰법 개정안과 문화분과 신설을 담은 중앙종회법 등을 가결했다.

특히 사찰법은 직영포교당 건립 및 운영에 따른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도심포교 활성화에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찰법 개정안은 교구본사나 공찰에서 도심포교 등의 목적으로 직영포교당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됐다. 직영포교당은 총무원장의 승인을 받아 교구본사나 말사(공찰)가 창건할 수 있으며, 직접 운영하고 재산권은 관할 사찰이 소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교구본사나 말사 주지는 직영포교당의 관리인을 위촉해 위임관리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영포교당은 교구본사나 말사에서 직접 운영하고 그 재산권은 관할 사찰이 소유하며 도심지역 등 동일 경내 이외에 위치한 사찰을 일컫는다. 이날 임시회에서 의원 스님들은 개정취지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분담금 책정 시 이중부과 우려 및 직영포교당 관리인의 귀책문제 발생시 책임 소지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그러나 개정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직영포교당 건립 운영의 법적 근거를 형성한 후 재점검하는 방향으로 가결키로 했다.

중앙종회법 개정안은 문화분과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한다. 이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문화 포교의 중요성과 범위가 크게 확대되고, 문화 분야에서의 전문성 및 범위확대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지적에 따라 기존 사회분과 위원회 소관 업무 중 문화 관련 분야를 독립적으로 관리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신설되는 문화분과위원회 총무원 문화부 소관에 관한 사항, 불교중앙박물관 및 성보박물관 소관에 관한 사항, 성보(불교문화재)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불교문화 및 예술에 관한 사항 등으로 세부 사항을 담은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이 경우 기존 사회분과에 포함됐던 방송언론에 관한 사항과 불교신문사에 관한 사항은 문화부 소관으로, 문화분과에 자동적으로 포함된다.

승려법 개정안은 승려 개인 명의 재산의 종단 출연을 위한 유언장 제출 시기를 기존 사미(니)에서 비구(니)계 수지 시점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의원 스님들은 유언장 제도가 전체 승려에게 의무로 제출토록 돼 있지만, 사미(니)의 경우 개인 명의의 재산을 취득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견덕(계덕) 법계를 품수받은 때부터 유언장을 제출하는 안을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번 종회의 쟁점 사안으로 주목됐던 종립학교 예비출가제도 신설을 골자로 한 청소년출가 · 단기출가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격론 끝에 철회됐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3월 28일 해당안에 대한 격론을 이어갔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휴회, 다음날 속개해 논의를 이어갔다. 해당안은 출가장려의 일환에서 종립학교 입학생들을 출가 전제로 모집해 지원하는 방안을 담았지만, 기존 승가교육 체계와의 충돌 및 현실성 여부 등 적지 않은 반대에 부딪혔다.

이에 정범 스님은 속개종회에서 제25조를 입학 시 사미 · 사미니계를 수지하고 졸업 후 비구 · 비구니계를 수지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특혜조항이 될 수 있는 제28조 2항(청년예비출가자 군승 전역시 말사 우선 임용)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졸속 입법에 대한 우려에 여러 의견들이 제시됐다.

담당 중앙종무기관인 교육원에서도 현 개정안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교육부장 서봉 스님은 "이건 새로운 출가방식이다. 사찰 승가대학 등에도 충격이 있다. 관련기관 공청회 등을 진행해 바람직한 안을 도출해주시길 바란다"면서 "현행 개정안은 사안이 심각해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결국 정범 스님은 개정안을 철회하고, 6월에 종회에 새로운 특별법을 제출키로 했다. 또한 정범 스님은 출가장려특위 위원장직에 대한 사임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직할교구 이외의 사찰이 전각의 신축 · 이전 · 철거시, 보다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방안으로, 현행법상 총무원장이 가진 승인 권한을 교구본사로 이양하는 안건 또한 첨예한 논의 끝에 차기 회기로 이월됐다.

해당 개정안은 종헌개정 및 종법제개정 특별위원회가 제안한 것으로, 다수 스님들이 절차상 간소화를 위한 취지에는 공감했지만, 현행규정 자체가 이미 사문화된 조항이라는 지적을 비롯해 이미 미승인 불사를 진행한 사찰에 대한 징계 및 관리 등 문제로 치열한 논의가 지속됐다.

이 과정에서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이례적으로 참석해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밝히기도 했다. 스님은 "사찰 불사시 총무원장 승인을 요하는 현행법의 취지는 규제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난개발을 최소화 하기 위한 조치"라며 "많은 스님들이 잘하고자 불사를 하는 경우겠지만, 몇 사례들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들이 양산돼 왔다. 총무원장 승인 절차는 난개발을 막기 위한 최소한 조치로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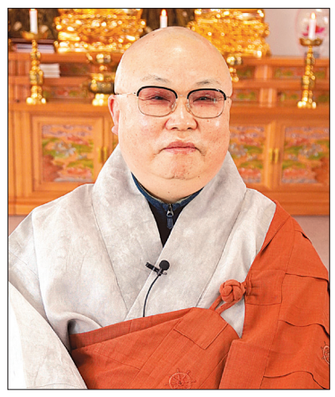
원행 스님 발언 직후 개정안을 발의한 종헌특위는 긴급회의를 열고, 해당안을 차기로 이월한 후 집행부와 교구본사주지협의회, 중앙종회 등 3자 논의 결과 다시 안건을 다루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이날 임시회에서는 새 원로의원으로 방장 원각 스님과 금산사 회주 도영 스님이 추천됐다. 또 초심호계원장 도신 스님을 비롯한 주요 인사안도 만장일치 통과됐다.

원로의원으로 추천된 원각 스님은 1967년 혜암 스님을 은사로, 자운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했다. 이후 해인총림, 영축총림, 조계총림 등 제방선원에서 정진했다. 경남 거창 고견사 주지, 해인사 원당암 감원, 해인총림 유나를 역임했다.

도영 스님은 1961년 월주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금오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석암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1969년 금산사 승가대학을 졸업하고 1970년 동국대 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금산사 주지와 조계종 종회의원, 조계종 포교원장을 역임하고 1999년 조계종 포교대상을 수상했다.

법화종 제20대 총무원장에 관효 스님



3월 29일 단독후보 출마
찬반 투표 만장일치 찬성
대선 비견할 관리로 만전
관효 스님 "새 미래 열자"

법화종 제20대 총무원장에 관효 스님(제주 혜관정사 주지, 사진)이 선출됐다. 관효 스님은 제20대 총무원장 선거에 단독후보로 출마, 참석선거인단 전원 찬성표를 득해 만장일치 당선됐다. 법화종이 오랜 종단 혼란을 종식하고 서리 체제에서 정상화 노력을 개진해 온 만큼, 제20대 총무원장 선출을 통한 정식체제로의 전환이 종단 면모를 일신하는 기폭제가 될 지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법화종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현묵, 이하 선관위)는 3월 29일 대전 총무원 청사에서 제20대 총무원장 선거를 시행한 결과, 관효 스님의 당선을 최종확정했다. 관효 스님은 3월 30일 종정 도선 스님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공식임기를 시작했다. 총무원장 임기는 5년이다.

관효 스님은 "혼자가 아니라 종도와 함께하는 소임으로 여겨, 법화의 가르침을 이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특히 '백년탐물 일조진(百年貪物 一朝塵) 삼일수심 천재보(三日修心 千載寶)' 의 가르침을 인용해 "법화종 70년 역사를 토대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스님은 "백년 모은 재물은 하루아침 티끌이요, 삼일 닦은 마음은 천년가는 보배라 했다"며 "성년이 되기 전부터 법화종도로서 살아왔고 70년이 넘는 지난 역사를 잘 알고 있다. 원로 스님들의 뜻을 잘 받들고 종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이제 100년을 향해가는 법화종의 역사가 한국불교의 천년 보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관효 스님은 2000년대 무렵 종단 집행부 소임을 역임한 후, 제주 혜관정사 주지로 전법수행에 매진해왔다. 지난해 혼란한 종단 사정을 바로잡기 위해 서리집행부 기획실장 소임을 맡아 정상화에 힘을 보태기도 했다. 종단과 종무행정에 대한 이해도가 깊은데다, 활발한 대사회활동으로 종단 안팎으로 인지도가 높다는 점이 강점이다.

스님은 1975년 자은암에서 혜봉 스님을 은사로 득도하고 1978년 혜관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했다.1998년 대법 법계를, 2008년 승정 법계를 품수했다. 자은암 감원을 거쳐 2003년부터 혜관정사 주지를 맡고 있으며, 2000년 법화종 사회부장, 교무부장을 역임했다. 제주교도소 교화위원과 제주경찰서 경승, 한국운전기사 불자회 제주지구 창립 지도법사 등으로 활동, 1998년 법무부 장관 표창, 2003년 민주신문 주최 21세기 한국인상을 수여했다.

대전=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종단 협력 강화해 국민 화합 나서자"

천태종 신임 총무원장 무원 스님, 조계종 예방



신임 천태종 총무원장 무원 스님이 3월 29일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종단 교류에 대한 논의를 나눴다.

종단협 회장 원행 스님은 "종단협에서 천태종 역할이 크다. 종단협 발전을 위해 앞으로 노력하자"며 "특히 한중일교류대회, 한일교류대회 등 코로나로 연기된 불교교류와 종단간 협력사업이 원활하도록 하자"고 말했다.

종단협 수석부회장이기도 한 무원 스님은 "한국불교계가 서로 화합해 동체대비를 실천해야 한다. 코로나 시기 불교가 해야할 것을 잘 인식, 각 종단 신도들과 국민들의 마음을 모으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예방에는 종단협 사무총장 도각 스님, 사무처장 진경 스님 등 종단협 인사들과 조계종 사회부장 원경 스님 등이 배석했다.

한편, 신무원 스님의 취임법회는 구인사에서 4월 9일 오전 10시 30분 열릴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봉 대한불교조계종 제15대 종정예하 행
중봉 성파 대종사 추대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본사
오대산 월정사

회주 연암 현해
주지 퇴우 정념

사부대중일동

주소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로 374-8 전화 033-339-6600 팩스 033-332-6915
홈페이지 www.woljeongsa.org 오대산 월정사

